

#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박람회’ 재개

전주교육지원청, 전북대와 협력... 6년 만에 개최  
진로 특강·고교 진학 등 총 3개 특강·49개 부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5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박람회는 △최고 동향과 관련한 진로 특강 △고등학교 진로진학 △대학 진학 및 학과체험 △진로적성 상담 △AI&발명 체험 △지자체·공공기관 체험 등 총 3개 특강, 49개 부스로 운영됐다. 특히 고등학교 진로진학에는 관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민

족사관고도 참여해 학부모의 관심을 모았다. 박람회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전북대와 협력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흥미와 재미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진학 활동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행사로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원과 지역 주민까지 참여한 진정한 지역 교육 행사로 치러졌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박람회는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진로진학 정보와 함께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목표 의식을 갖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5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박람회’.  
(사진=전주교육지원청 제공)

이라며 “추후 중·고등학생과 교원 중 부모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지난 2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 전북대서

뉴스포츠 경기로 교류 확대, 문화공연·리셉션 등 화합 한마당

‘2025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지난 21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제전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거점국립대 소속 교원·직원·학생 약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10년 만에 다시 전북대에서 열리는 제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큰 공굴리기, 비전답 쌓기, 파도타기, 단체줄넘기, 미션 제주 등 뉴스포츠 중심의 종목에서 열린 경합

을 벌였다. 전북대 응원단과 학생 동아리 공연이 이어진 문화행사와 리셉션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바비큐, 경품 추첨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양오봉 총장은 “가을 향기 가득한 전북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거점 국립대학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여러분이 솜은 팔방울은 우리나라 대학 발전의 무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 비전 선포 |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출범

실천 중심 교육혁신 플랫폼

“흙수저 아이였던 저는, 이제 전북 아이들이 격차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북교육 혁신과 새바람을 위해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상임대표 이남호)이 23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포럼 회원과 교육계·정치권·학계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이남호 상임대표가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 비전을 선포하며 전북교육 혁신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포럼은 실천 중심의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전북 교육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이 23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포럼 회원과 교육계·정치권·학계 등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2부 행사로 진행된 공감토크.

### 이남호 상임대표 “전북 아이들이 격차에 막히지 않도록 길 만들고파”

(전 사대부고 교장) 공동대표가 경과보고와 함께 포럼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이남호 상임대표가 비전 선포를 통해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의 비전인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은 닫힌 학교가 아닌 열린 학교,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과 관계가 살아 있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위기의 전북 교육을 살리는 것이 진짜배기 전북

교육포럼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간절한 꿈으로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오늘 출범식은 전북교육의 르네상스를 여는 자리이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로 이남호 상임대표의 제자이자 방송인 허재무씨(비바컴퍼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공감토크’는 캠퍼스 분위기의 프리토킹 형식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상임대표는 공감토크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배우자 믿음, 걸어온 길 등 삶과 교육 철학을 진솔하게

연결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제출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북교육의 혁신 방향과 미래교육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전북교육 미래전략 개발 △학교·지역·대학·산업 협력 모델 제안 △교육공동체 대상 상향식 현장 문제 및 정책 제안 △교육 혁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상임대표는 “모범생 이남호가 아닌 ‘모험생 이남호’로 학교생활을 했더라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란 아쉬움도 크다”면서 “흙수저 아이였던 저는 이제 전북 아이들이 격차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닷새간 ‘민원 주간’”

11월 24일 ‘민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28일 5일간 ‘민원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의 날’은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4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민원의 날 의미를 생각하며, 민원 주간 동안 교육지원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상호존중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인·민원담당자에게 바라는 한 문장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는 민원인·민원담당자 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댓글 달기 형식으로 이뤄진다. 투표를 통해 1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과 기념품도 증정된다. 한편, 27~28일 양일간 민원담당자 자기 진작 및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분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민원 담당자 75명을 대상으로 힐링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제6차 전북교육기록 연구협의회 개최

사립유치원 기록관리 안내서 제작 등 기록관리 수준 향상 기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제6차 전북교육 기록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소속 기록 연구사 15명으로 구성된 전북교육기록 연구협의회는 안정적인 기록연구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기록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23년 출범했다. 이후 정례회를 통해 신뢰와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중점 연구과제 공동 추진, 각종 기록관리 현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다. 올해는 1월 24일 첫 협의회를 시작으로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사립유치원 기록관리 안내서 제작’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체계적 관리 기준이 부족했던 사립유치원의 기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학교 단위 과제별 생산·등록 세 부기준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서 기록물 생산과 분류·등록 과정을 명확히 하고, 업무 효율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보건프로그램 절주 캠페인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이 지난 21일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보건프로그램 절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본교 학생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절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음주 상식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릴레이 퀴즈 △간강한 대체 음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무알코올 음료 제조 및 시음 체험 △절주의 중요성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음주교과 게임 △자신의 주량을 인식하고 음주량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술의 적정량 조절 체험 등이 있다. 캠페인 총괄을 맡은 보건관리학과 신혜빈 학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건관리학과가 주도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대학에서 보낸 청춘, 브이로그 영상에 담다’

전주대, 유학생 브이로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20일 대학 내 국제교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브이로그(V-Log) 영상 콘테스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주대학교에서의 일상과 캠퍼스 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학생들은 수업, 동아리 활동, 교내 시설 이용 등 실제 대학 생활의 모습을 3~5분 영상에 담아냈다.

공모전에는 5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해 열린 경연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중국 출신 광성남(중국)학생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테레사 제 사이(미얀마)이, 은상은 응웬티쭈크·짚후호영(베트남)이, 장려상은 타망주나(네팔) 학생 외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입상작 영상은 SNS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취업 A to Z 실전코칭 캠프’ 진행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과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5 취업 A to Z 실전코칭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전공 역량을 실제 직무와 연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에는 수학교육과와 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작업치료학과, 체육학과 등의 재학생이 함께 했다.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전공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작 △지역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기관 채용 유형 반영 면접 컨설팅 △모의면접과 전문가 피드백 등 단계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조별 실습과 1:1 피드백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채용 상황을 반영한 모의면접으로 현장 대응 능력과 자신감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